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4만 달러는 ‘보스형’ 아닌 ‘리더형’이 이끌 때 가능

글_윤성혜 과총 객원기자 cathyshyoon@naver.com

지난 7월 4일 ‘2013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이하 연차대회)’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이하 주성) 사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 날 강연의 주제는 ‘4만 달러 선진 한국을 위한 새로운 성장’이었다.

황 사장의 화두는 ‘창조의 가치’였다. “변화하는 만큼 성장하고 차별화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변화와 차별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창조라고 생각한다.” 창조의 경쟁자는 창조보다 더 크고 강한 시장의 기득권인데 창조의 가치가 이 시장의 기득권을 이길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창조철학을 일사천리로 설파했다. 주성은 창업 당시 “나사 하나도 국산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이겨내고 반도체 양산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 1위의 경쟁사마저 누르며 고속성장을 이뤄왔다고 술회했다. 또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게 된 비결이 창조와 혁신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숫자들을 제시했다. “주성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6개나 개발했고 1천 7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년간 직원의 40% 이상이 R&D를 했고 여기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약 3천400억 원인데 이는 현재 회사의 시가 총액을 넘어서는 액수다.”

황 사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창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과 성공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가령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제기능올림픽에 19번 참가해서 17번 종합우승을 해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라는 것이다. 또 일본은 세계 수출 1위 품목이 230개, 중국은 1천400개가 넘지만 한국은 60개 밖에 안 되는데도, 창조적인 명품의 가치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황 사장은 일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여생은 당연히 힘든



일 하지 않고 대접받고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득층이 현장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일 때 비로소 노동생산성은 배가되면서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소득시대가 올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주간 노동시간이 가장 깊어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런 기득층이 직장에서 리더가 아닌 보스로서 군림해 왔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사업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R&D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라도 자신이 직접 R&D 연구 현장을 지휘한다는 그는, “보스와 리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보스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기피하면서 책상에서 서류로만 일하려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성공의 몫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책임지며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2만 달러 시대는 1%의 보스형과 나머지 99%의 탐과 희생, 고통으로 이뤄졌으나 4만 달러 시대는 더 이상 보스 형으로는 안 되며 리더형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개진했다.

끝으로 황 사장은,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립이 어려운 농촌에 선진 영농 과학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줌으로써 한·중·일 통틀어 약 2억 명에 달하는 한국산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요를 흡수한다면 농촌이 선진화하면서 자연히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SD**